

이주문학과 정체성의 정치

-네덜란드 이주작가 하피드 보아자를 중심으로*

문지희**

|| 차례 ||

1. 들어가며: 네덜란드 이주문학
2. 하피드 보아자: '나는 네덜란드 작가다!'
3. 문화적 뿌리에 대한 접근
4. 위치화의 경계성 - 정체성의 정치
4.1 유기적 개념으로서의 고향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2세대 모로코계 네덜란드작가인 하피드 보아자(Hafid Bouazza)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의 작품이 독자들이 기대하는 가치와 카테고리를 거부하며, 예술적 자유를 피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이주문학 작가들에게서 기대하는 것과 모국어 쓰는 작가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들 작품에는 자신이 속한 그룹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부각되곤 한다. 더불어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주문학에 대해 지속적인 의심의 눈길을 주기 마련이다. '이주 작가들에 대한 관심과 성공은 - 그것이 문학비평적인 면에서든 상업적인 면에서든 - 이들의 문학적 성공인가 아니면 공정함을 추구하는 정치인가?' 작가 보아자는 작품을 통해 독자들의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폭로하며, 서구의 단

* 이 논문(저서)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8933)

이 연구는 2017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네덜란드어과 부교수. zihimoon@hanmail.net

일문화 신화를 비판한다. 이는 동시에 절대 진리와 절대적 타자성에 대한 비판이다. 더 나아가 보아자는 문학과 문화의 혼종적·경계적 공간을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자유로운 방랑자의 삶을 살기를!’ 작가는 이렇게 외친다. 특정한 뿌리, 특정한 문화에 얽매이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와 포용성이 오늘날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작가는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아자가 자신의 다양한 작품 속에서 표방하는 자유, 포용 그리고 경계성은 그의 아랍 정체성과 네덜란드 정체성이 끊임없이 타협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이주문학, 자전문학, 정체성의 정치, 네덜란드문학, 하피드 보아자, 파라비온, 이주작가

1. 들어가며: 네덜란드 이주문학

16세기 이래 네덜란드로 유입된 다양한 이주의 물결이 현재 네덜란드 문화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네덜란드에서 이주문학의 위치는 어떠한가? 17세기 네덜란드 식민주의의 팽창으로 인해 네덜란드령 동인도(현재의 인도네시아)의 식민주의자들 또는 공무원들은 활발한 문학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후 동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된 이주민들과 난민들, 그리고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남부 유럽과 터키와 모로코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 후손들이 현재 네덜란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주문학은 네덜란드 문학계에서 정전문학으로 간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네덜란드사회에서 이주문학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란출신의 까더

1) 네덜란드 이주문학에 관한 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 이주문학에 나타난 혼종성과 정체성의 정치 -까더르 압둘라의 ‘초상들과 오랜 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36, 2009, 145-170면; “이주문학의 경계성과 문화 퍼포먼스 - 네덜란드 작가 까더르 압둘라의 ‘상형문자’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학회* 58, 2017, 269-296면.

르 압둘라(Kader Abdolah), 중국출신의 룴루 왕(Lulu Wang), 소말리아 출신의 야스민 알라스(Yasmine Allas), 수리남 출신인 클라크 아코드(Clark Accord) 그리고 인도네시아계인 알프레드 비르니(Alfred Birney)는 모두 네덜란드 문학계에서 이주문학의 위치를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주의가 네덜란드의 사회정치적 이슈로 뜨겁게 부상하던 1980~90년대 시대정신(zeitgeist)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2세대 이주작가들은 1990년대 이후 네덜란드 문학계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로코계 이주집단은 놀라울 만큼 많은 젊은 작가들을 배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주요 문학상을 석권한 하피드 보아자(Hafid Bouazza)와 압델까더르 베날리(Abdelkader Benali)이다. 이 두 작가는 네덜란드사회에 동화한 성공적인 모델로 간주된다. 이 글에서는 하피드 보아자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이주작가가 구현하고 있는 위치화와 정체성의 정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하피드 보아자: ‘나는 네덜란드 작가다!’

하피드 보아자는 1970년 모로코에서 태어났다. 알제리 출신 어머니와 모로코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가 한 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네덜란드의 제철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1977년 보아자의 어머니와 일곱 자녀는 아버지를 따라 네덜란드로 이주했다.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공부했으며, 아랍어문학을 전공한 그는, 1996년 데뷔작품인 ‘압둘라의 발(De voeten van Abdullah)’을 발표함과 동시에 문학계의 큰 관심을 받게 된다. 그는 소설가뿐 아니라 극작가, 셰익스피어 작품의 번역가, 아랍 고전시 번역가로서 활동했다. 네덜란드 일간지인 엔에르세 한델스블라트(NRC Handelsblad)와 프레이 네덜란드(Vrij Nederland)의 에세이작가로서 꾸준히 활동했으며, 특히 소설에서는 종종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평적인 시선들을 담아내었다. 2003년에는 암스테르담 예술상(de Amsterdamprijs voor de Kunsten)을, 2004년에

는 황금 부엉이상(Gouden Uil Literatuurprijs)을 수상하였다.

사실 많은 이주작가들은 그들 작품의 문학적 가치와는 별개로 ‘타민족(allochthonous)문학’, ‘타민족(allochthonous)작가’라는 꼬리표를 달기 마련이다. 하지만 종종 논쟁의 중심에 서는 이 ‘타민족’이라는 용어는 작가의 작품이 이주의 경험과 언어의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음을 가정하게 만든다. 마치 이러한 주제들이 이들 작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듯 말이다. 이주작가의 작품을 접할 때면 독자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나 외국인으로서 경험하는 네덜란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작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한다. 터어키, 모로코, 레바논 출신 2세대 작가들의 작품모음집인 ‘내 마음속 조국(Het land in mij)’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에르귤(Ergün) 역시 ‘이주문학’ 또는 ‘타민족문학’ 등의 용어사용을 신랄히 비난하며, 문학작품에 이러한 꼬리표를 다는 행위는 기존 네덜란드문학계에 대한 옹호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2세대 이주작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후, 미디어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터어키 출신 또는 모로코 출신이라는 이들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들 작품은 ‘(타)민족문학’이라는 레이블을 얻었습니다. 이 레이블은 이내 주홍글씨가 되었습니다. 이주작가의 정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피부색, 그들이 쓰는 언어, 아니면 작품의 주제가 중요한 것인가요? 네덜란드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슬람에 관한 글을 쓴다는 사실만으로 ‘이주작가’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던가요? 이주문학이라는 용어는 단지 작가의 배경만을 가리킬 뿐, 작품의 내용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²⁾

하피드 보아자 또한 ‘타민족작가’, ‘이주(migrant)작가’, ‘민족(ethnic)작가’, 심지어 ‘모로코계 네덜란드(Moroccan-Dutch)작가로’ 명명되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해왔다. 더 나아가 신문과 잡지 인터뷰에서 종종 ‘나는 네덜란드 작가다(Ik ben een Nederlandse schrijver)’라고 외치며, 모로코계라는 자신의

2) Ergün, Ayfer. 1996. 8면.

배경이 작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곤 했다. 많은 매체들에서 ‘작품을 쓰는 “나”는 내가 가진 민족적 배경과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피력하며, 단순히 ‘타민족(allochtonen) 작가’로 치부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해왔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는 데뷔작품으로 네덜란드 사회에서 문화간 상호교류에 기여한 작품 또는 작가에게 주어지는 듀 페론상(E. du Perron Prijs)을 수상하였다. “보아자의 작품 ‘압둘라의 발’은 네덜란드 내 다양한 집단들의 상호이해와 동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는 심사평에 대해 보아자는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자신은 ‘네덜란드와 모로코집단의 대변인도 아니며, 다양한 문화집단 사이의 중재자도 아니다’라고 피력한다.

“나는 글을 쓰고 싶어서 작품을 쓰는 것이지, 문화간 상호교류를 위해 작품을 쓰는 것은 아니다. 똑바로 이해하기를. 또 나는 2세대 이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나는 사회 봉사자가 아니다. 네덜란드 작가는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 작품을 쓰겠는가?”³⁾

더 나아가 그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정치나 행정가들의 몫이지 작가의 역할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며, 문학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지, 모로코계 집단의 대변인으로서 행동하기 위해 문학작품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보아자는 독자들과 비평가들의 선입견에 의한 왜곡된 접근을 거부하며, ‘네덜란드어로 글을 쓰는 네덜란드 작가이자 개인적인 예술적 감성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평범한 작가’로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다.

‘우리는 타자 또는 다른 그룹과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주장하는 로버트 영(Robert Young)에 따르면, 동질성과 차별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불가피하게 우월집단의 관점에서 정의되기 마련이다. 우월집단은 소수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재정의한다. 즉, 소수

3) Kieskamp, Wilma. 'Bekroonde Hafid Bouazza gebruikt archaisch Nederland in sproojesachtige verhalen', in *Trouw*, 21 January 1997.

집단의 정체성은 지배집단으로부터 부여된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구현된다.⁴⁾ 이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관점이다.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타자의 이미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신의 정체성 또한 결코 고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부정적 정의가 부여되는 타자에 의해 나 자신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⁵⁾ 이렇듯 정체성의 개념이 완결된 형태가 될 수 없다면, 정체성을 규정함에 중요하게 간주되는 ‘(문화적)뿌리’에 대한 접근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3. ‘문화적 뿌리’에 대한 접근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피드 보아자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출신배경을 잊고 감상해달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해왔지만, 그의 독자들에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보아자의 개인적 배경과 이주 2세대라는 그의 위치가 작가로서의 그의 명성에 기여한 것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문학 이외의 요소들은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접근방법들이다. 작가는 자신의 이주 관련 주제들을 작품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독자들은 책표지의 이국적인 작가이름이 선사하는 매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아자의 글쓰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작품 ‘압둘라의 발’의 경우 책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베르톨로라고 불리우는 모로코의 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바로 이 마을이 보아자가 어린시절 살았던 마을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 책이 보아자의 자전소설이라고 서슴없이 판단하게 되지만, 이러한 자전적 요소의 사용은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 틀 또는 형판(型板)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모로코 출신 작가

4) Young, Robert. 'Deconstruction and the Postcolonial', 2000. 200~201면.

5) Derrida, Jacques.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1998. 28면.

의 작품을 대할 때면 독자는 의례히 ‘천일야화’에 등장할만한 동양적인 분위기 또는 ‘이국적인 색채’를 기대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분명히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베르톨로라는 마을은 즐거움이 가득한 동양적 색깔의 마을에서 점차 폭력과 억압, 근친상간과 문란한 성(性)문화, 그리고 살인이 만연한 장소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베르톨로의 주민들은 아둔한 듯 보이지만, 이 또한 보아자가 독자들에겐 선입견이나 편견을 겨냥해 계획적으로 설치해 둔 장치임을 깨닫게 된다. 즉, 아랍문화는 선명한 ‘문화적 타자’로 위치되고, 이는 다시금 유럽문화와 아랍문화가 단순·명료하게 대조되는 부조리함을 드러내며, 더 나아가 문화적 편견과 획일적인 문화에 대한 조롱과 비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1998년 출간된 소설 “모모(Momo)”는 헤르프스호븐(Hefsthoven)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와 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로서, “압둘라의 발”에서와 매우 흡사한 방법으로 문화적 편견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 소설에서는 헤르프스호븐이라는 풍차와 제방이 있는 전형적인 네덜란드 마을이 ‘형식적인 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베르톨로의 주민들처럼, 이번엔 모모라는 아이가 정체성이 불명확한 아웃사이더로 비춰지고, 모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낯설고 이상한 사건들로 인해 이 마을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공간으로 조명된다. 이러한 모호한 감정은 특히 모모의 언어사용으로 인해 더욱 명확해진다. 이주작가의 작품에서 독자가 쉽게 기대할 수 있는 이색적인 색깔은 작품속에 등장하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색적인 언어들이 충족시켜주는 듯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이색적인’ 언어들의 대부분이 순수 네덜란드어라는 점이다. 즉, 이 ‘이색적인 언어’는 독자의 일상과 기억에서 잊힌 바로 그들의 모국어이다. 따라서 작가가 설치한 장치는 우리 일상의 ‘익숙함 속의 낯설음’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헤르프스호븐이라는 네덜란드 마을 속에, 그리고 자신의 모국 네덜란드어에서 발견하는 낯설음이다. 즉, 보아자는 ‘이주’라는 것이 결코 단순한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독자들이 ‘자전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글쓰기에도 작가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독자들이 때로 되었던 ‘이국적인 요소들’은 이들을 조소하는 장치가 되며, 책을 펼치

며 예상했던 나와 타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는 이제 독자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에 직면하게 된다. 보아자의 작품들은 동양에 대한 서구의 선입견을 폭로하는 동시에, 서구의 단일문화 신화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 진실과 절대적 타자성에 대한 비판이다. 작가는 문학과 문화 상호간의 관계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문학과 문화의 혼종적, 경계적 공간을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경험은 불가피하게 혼종성과 다양성으로 정의되기 마련이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에 따르면, 문화정체성이라는 것은 ‘위치화’의 일환이며, 따라서 정체성은 불변의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모로코와 네덜란드라는 두 문화 사이에서 형성된 보아자의 정체성을 논할 때, 이러한 홀의 주장은 유용하게 인용될 수 있다. 그 어떠한 고정된 형태의 정체성도 거부하며, 늘 변화하고 유동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작가는 ‘경계적 위치화(liminal positioning)’ 또는 혼종적 정체성의 특징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위치화의 경계성 - 정체성의 정치

문화의 경계성(in-betweenness), 또는 다양한 문화의 상호교류와 혼합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은 이주문학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은 이주의 경험과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자아 정체성과 공동의 정체성을 조명하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 드러나는 언어의 문제와 재현의 과정을 드러낸다. 즉, 재현의 방식(mode of representation)으로서의 혼종성은 정체성의 복합성과 다중성을 만들고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소머(Sommer)은 “이주 소설 Fictions of Migration”라는 책에서 이주문학이 가지는 몇 가지 타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 ‘transcultural hybrid novel’은 배타적인 국가

6)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1994, 402면.

적·민족적 정체성에 반대하여, ‘고착된 문화정체성을 용해’하고자 하며, ‘범세계적 혼종화’를 피력하거나, ‘파편적 성격의 민족성’을 표방한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경계성(in-betweenness)’, ‘국경없는 범세계화’, 그리고 ‘범국가적(transnational)’이며 ‘한시적(transitory)’인 정체성으로 설명되는 호미 바바(Bhabha)의 혼종성에 대한 이론과도 긴밀히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transnational hybrid novel’은 앞서 프랑크가 말한 이주문학의 특성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이주작가들의 정체성은 그동안의 다각적 관점의 습득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 더욱 불순하고 파편적인 것으로 ‘다시쓰기’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주문학은 의도적으로 의미와 정체성을 불순하고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혼종적 담론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석된다.

작가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과 작품과의 관계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복잡하며 민감한 문제이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작가가 ‘이주’라는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경우, 그의 작품을 접근하는 채널은 더욱 복잡해진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문학계에서 비평가들과 학자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해 온 분석의 틀은 이들이 한 (민족)집단의 대변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관점이었다.⁷⁾ 이러한 경우 ‘정체성’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접근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다문화주의와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을 연구하는 스네야 구뉴(Sneja Gunew)에 따르면, 정체성이란 것은 ‘뿌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주자는 뿌리(고향)를 잃은 자기에 그 결과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상실에 대한 치유의 행위로서 필연적으로 정체성에 관한 글을 쓰게 마련이라고 주장한다.⁸⁾ 즉, 이 논리에 따르면, 정체성은 불가피하게 ‘문화적 코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주작가들은 바로 이러한 연

7) 이러한 접근법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이주작가인 까더르 압둘라(Kader Abdolah)의 작품을 분석한 필자의 방법론이기도 했다. 이는 작가 압둘라 본인이 이슬람문화의 대변인이자 페르시아 문화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늘 강조해왔기에 타당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어떤 문화집단의 대변인이 아닌 ‘네덜란드어로 글을 쓰는 네덜란드 작가’임을 피력하는 2세대 이주작가 하피드 보아자의 경우, 작품을 접근하는 방법론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8) Hoving, Isabel. "Review: The postcolonial turn in Dutch literary criticism", *Journal of Dutch Literature*, Vol.1(1), 115면.

결코드가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인의 정체성은 문화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고유한 개성을 가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으로도 분류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문화적 틀을 넘어 보편적인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게끔 한다. 동시대 대표적인 이주작가 중 한 사람인 살만 루쉬디는 ‘조국을 잃은 상실감, 자신의 모국어를 잃은 박탈감은 이주작가에게 훨씬 더 강렬하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조국이 아닌 ‘그 어디엔가’에 위치한 작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주체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평가한다.⁹⁾

이주자는 한 사회의 인사이더인 동시에 아웃사이더이다. 이러한 입체적 관점은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경계성과 혼종성을 지닌 젊은 2세대 이주작가들의 문학은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문학계의 새로운 현상으로 불리며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기대 기저에는 네덜란드 문학에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정전(正傳)문학의 탄생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문학은 소수그룹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계문학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계적 작가로서의 보아자는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는 입체적 관점을 작품속에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소설 “파라비온(Paravion)”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작품 “파라비온”은 “압둘라의 발”에서와 같이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모로코와 흡사한 모습을 가진 ‘모레아(Morea)’와 암스테르담과 매우 비슷한 미스터리한 도시 ‘파라비온(Paravion)’이 그 구도의 대척점에 있다. 파라비온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이 도시에선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트램이 지나다니고 [...] 암스텔 강엔 건물들의 모습이 강물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의 중심엔 푸른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햇살이 좋

9) Rushdie, 'Imaginary Homelands', 1991, 12면.

을 때면 누구나 나와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채 옹기종기 모여있다.’ 암스테르담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이 묘사에서 화자의 환상과 현실세계의 경계는 불분명해 진다. 바바 발록(Baba Balook)이라는 등장인물은 마을의 다른 남자와 함께 자신의 고향 모레아를 떠나 파라비온으로 가게 된다. 마치 나는 양단차를 타고 떠나는 듯 순식간에 모든 남자들이 행복을 찾아 이 마을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바바 발록의 아내 마무라를 포함한 이 마을의 모든 여성들은 임신한 채로 모레아에 남게 된다. 마무라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고, 다른 여성들은 딸을 출산한다. 작품 “파라비온”은 파라비온이라는 도시에서 남성들이 만들어 내는 세상과 모레아에 남은 여성들과 바바 발록의 아들이 만들어 내는 세상과의 대조를 그 기본 틀로 하고 있다. 파라비온에서 이주해온 남성들은 그들이 모레아에서 했던 것처럼 찾집을 전전하며 파라비온의 여성들이 너무 개방적이라고 불평을 토로한다. 이들에게 이주국과 모국의 경계는 미미하다. 모레아의 남성들은 파라비온을 꿈꾸고 동경하지만, 파라비온에 이주해 온 이들은 자신의 고향을 이곳에서 재현하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파라비온이란 곳이 자유로 가득하고 누구에게나 문이 열린 도시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누구에게나 환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은 아니다. 도시 입구에는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고, 도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대기자들이 문밖에 줄을 지어 있다. 또한 파라비온으로 향하는 길이 그리 안전하지도 않기에 길 위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수천마리의 부엉이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채 제방위에 매달려 있었다”는 비유에서처럼, 파라비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이주민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비록 이곳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레아에서 온 남성들처럼 자신의 예전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경계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레아에서 태어난 발록의 아들은 파라비온에서 온 아버지의 편지에 ‘항공우편’ 즉, Par Avion이라고 찍힌 도장을 보고 아버지가 파라비온이란 도시에서 보내온 편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파랗고 하얀색의 네모난 우표에 선명히 적힌 ‘파라비온(Paravion)’은 남편과 아버지가 있는 도시명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상상하는 환영의 도시이기도 한 것이다. 남성들이 떠난 뒤 모레아에 남은 여성들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남성의 권위가 사라지자 진정한 (성적)자유와 하모니와 행복이 가득한 파

라디스를 맞는 듯 보인다. 반대로 남성들은 파라비온에서도 남성중심 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그 어떤 만족스런 삶도 접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작가 보아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는 아닐 것이다. 남성들은 모레아의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파라비온에서는 그곳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한다. 여기도 저기도 아닌, 이들이 처한 경계성의 공간은 두 문화가 만나고 소통하는 유익한 공간이 아니며, 그 어떤 문화에도 속할 수 없는 황폐한 'No man's land'이다.

보아자의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주'와 개인의 자유는 문화적 정체성과 대화, 그리고 젠더개념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단순히 딸, 어머니, 배우자의 역할 이외의 위치를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은 파라비온의 남성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간다. 또한 남성들은 여성들과의 대화를 두려워하는데, 진정한 대화는 자신을 완전히 열고 보여주었을 때 가능하기에 남성우월의 문화적 신화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이러한 대화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방을 피하려는 발버둥은 결국 이 남성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모레아에서 자신의 딸을 데려와 신부로 맞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만든다. 폐쇄적 문화의 최악의 결과가 근친상간이 되는 것이다. 작가는 모로코계 네덜란드 이주민 사회에 던지는 보수적 관념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여성해방에 대한 호소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려주고 있다.

'이주작가'라는 타이틀을 거부하는 작가 보아자의 작품에서 이주라는 소재는 사실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다른 문화적 배경이 작품 속 이국적인 장식을 더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작가가 '이주'의 개념을 새로운 자유와 관용을 위한 알레고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관용과 소통의 '오픈 마인드'를 통해 충돌은 만남이 되고, 차이는 공존이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아자 작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조건없는 자유와 오픈마인드, 편견으로부터 벗어난 시선을 갖자는 탄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미디어를 통한 강한 정치적 발언과는 별개로, 문학작품 속 보아자는 단순한 이분법 구조로 제시되는 다문화사회의 긴장에 대해 강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1 유기적 개념으로서의 고향

보아자는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적 발언을 정기적으로 제시하는 작가이다. 무엇보다 그는 이슬람 극우주의에 대한 자신의 비평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 예로, 그는 네덜란드 일간지에 ‘네덜란드는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제목의 논쟁적인 에세이를 기고하였다.¹⁰⁾ 그는 정기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이슬람 근본(극우)주의에 대해 강렬한 비판으로써 ‘전 이슬람교도(ex-Muslim)로서의 그의 정체성’과 타민족(allochthonous)작가로서의 그의 위치를 굳히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마르크 오제(Marc Augé)는 슈퍼모더니티라고 규정한 현대사회의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 인류학의 전통적인 연구대상, 즉, ‘인류학적 장소(anthropological places)’와 대비되는 장소성을 특징지으며 ‘비장소(non-places)’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그에 따르면, 특정 ‘영토’와 ‘사회’를 초월한 비장소를 경험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고향 또는 집’이라는 개념도 더 이상 지정학적 장소나 근원적 뿌리 개념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옷차림과 말하는 태도에서, 기억이나 이야기 등 일상의 행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 또는 습관적인 태도나 상호관계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¹⁾ 즉, 고향이라는 것은 고정된 지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향 또는 집이라는 개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듯, 많은 불확실성과 역설들이 공존하는 하나의 유기적 개념 또는 퍼포먼스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겠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고향 또는 집은 타인과의 공유 그리고 집단적 개념을 박탈당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의 범주에 위치하게 된다. 마치 역동성과 부동성의

10) Bouazza, Hafid. ‘Nederland is blind voor moslim-extremisme’ in *NRC Handelsblad*, 20 February 2002.

11) Rapport & Dawson, ‘Migrants of Identity’. 1998, 6~7면.

12) Louwerse, *Homeless Entertainment*. 2007, 71면.

변증법처럼 다양한 정체성들과 관계성들, 인간과 사물들, 단체와 사회, 문화, 환경들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보편적인 방법 -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해 가는 과정일 것이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모로코라는 지리적 배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 독자들이 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 이야기들은 모로코에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습득된 것이다”.¹³⁾

보아자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 또한 정형화된 틀과 닫힌 사고를 거부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다양성과 혼종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따라서 결코 멈추어 있지 않은 작가의 (또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명하고 있다. 즉, 보아자가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경계에 선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을 찾으려는 작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정형화된 사고의 패턴과 정체성을 탈피하여 자유로운 생각과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독자를 향한 메시지라고 판단된다.

작가는 한 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해온 이주민으로서의 경험과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주라는 것은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를 말하지만, 오히려 나만의 경계를 만드는 행위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낯선 땅에서 고향의 익숙한 생활방식을 모방하거나 추구함으로써 또 다른 작은 모국(home from home)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모습으로 문화의 경계를 넘고 쇄신해 가는 것이 이주의 주요 요건이라고 주장한다¹⁴⁾. 보아자에게 이주는 경계를 넘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작가는 외친다. “이산(離散)의 삶을 살라! 고향에 얽매이지 말라!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라! 상상력을 발휘하라!”¹⁵⁾ 그에게 이주와 이산은 고향과 뿌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3) Bouazza, *Een beer in Bontjas*. 2001, 51-52면.

14) Louwerse, 'Hafid Bouazza'. 2008, 3면.

15) *ibid.*

5. 나가며

프랑크(Søren Frank)는 *Migration and Literature* (2008)에서 최근 부상하는 연구분야이자 장르로서의 이주문학이 표방하는 주제들과 형식을 설명한다. 특히 주제면에서 이주문학은 자아정체성, 문화정체성, 국가정체성, 세계화의 과정이 주된 맥락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주문학작품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아프고 불안한 이주의 경험을 건설적이고 흥미로우며 설득력 있는 경험으로 승화시키며,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주의 경험과 타협해 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주문학은 자신의 혼종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현하며 ‘정체성 다시쓰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문체면에서도 이산·이주의 경험을 텍스트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을 통해 텍스트의 혼종성을 부각시키며 스토리와 담론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주문학과 작가정신에 대한 보아자의 견해는 “모피코트를 걸친 곰 (Een beer in bontjas)”라는 에세이 집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책은 2001년 ‘두 문화 사이의 작가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도서주간 기념출판도서이다. 이 책에서 보아자는 자기 자신을 반어적으로 N.S.M.A.N.¹⁶⁾으로 소개한다. 그가 의미하는 것은 ‘모로코출신의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네덜란드 작가 (Nederlandse Schrijver van Marokkaanse Afkomst met Nederlandse Nationaliteit)’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그는 문화적, 인종적으로 구분되거나, 특정 문화와 특정 사회공동체의 대변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상상력과 예술가 정신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한다. 예술을 다룸에 있어서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은 언어이지 작가의 사회적, 문화적 위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보아자는 오늘날 네덜란드 문학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네덜란드 작가임에 분명하다. 훌륭한 언어사용으로 독자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작품의 신비성과 신선함으로 이들을 매료시키기도 한다. 그럼에

16) 이 단어는 국가사회주의 또는 나치를 연상시킨다.

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보아자의 작품을 접할 때면 그의 문학 외적 요인들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하피드 보아자가 지속적인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다양한 매체들에 표명했던 사회참여적 발언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003년 “파라비온”이 출간되었을 때, 네덜란드는 사회동화와 이슬람에 대한 논쟁으로 한참 뜨거웠었다. 2002년 네덜란드 정치인 펴 포르타윈(Pim Fortuin)의 암살사건과 아얀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의 이슬람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으로 인해 정치계와 대중들의 관심이 한참 뜨거웠을 때이기도 하다. 같은 해 보아자는 유명 일간지에 네덜란드의 이슬람 극우주의를 비난함과 동시에, 네덜란드인들이 이슬람 극우주의의 위협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네덜란드 민족주의와 극우주의의 위협과 현실 또한 직시하지 못함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가 정치적 발언에서 보여주었던 날카로움과 분명한 비판은 작품 속에서 그 색깔을 달리하며 조건없는 자유와 포용을 피력한다. 보아자 작품에서는 육체적, 공간적 이동으로서의 이주뿐만 아니라 자유와 포용을 표방하는 정신적인 변화로서의 이주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작가정신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셀로(Othello)의 번역본(2003)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무어인(Moor)으로서 흑인으로 묘사되던 오셀로가 보아자의 번역본에서는 선명한 아랍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데, 왜냐하면 원본에서 베르베르인으로 묘사되는 오셀로는 그 문화적 정체성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셀로의 불분명한 문화정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보아자는 작품에 다문화적 색채를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아자는 외친다. ‘자유로운 방랑자의 삶을 살기를!’¹⁷⁾ 특정한 뿌리, 특정한 고향에 얽매이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이 오늘날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작가는 피력하고 있다. 즉, 보아자가 자신의 다양한 작품 속에서 표방하는 자유, 포용 그리고 경계성은 그의 아랍 정체성과 네덜란드 정체성이

17) Bouazza, *Een beer in Bontjas*. 2001, 116면.

끊임없이 타협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문화적 경계를 지속적으로 넘나드는 글로벌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이주문학’은 더 나아가 글로벌문학, 트랜스내셔널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에, 보아자의 작품들 또한 특정 국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ABSTRACT]

Migrant Literature and Performance of Identity:
Study on Moroccan-Dutch Author Hafid Bouazza

Moon, Jihie

This paper focused on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the liminality of the Dutch migrant writer, Hafid Bouazza. On the one hand, he demonstrates his positional performance as a Dutch writer; on the other hand, his (Moroccan) cultural identity is continuously in dialogue with his new Dutch identity. In this process, the hierarchy between the centre and the margin, between autochthon and allochthon, is destabilized. What makes Hafid Bouazza stand out is his strong resistance to being considered as a migrant writer, an ethnic writer or even a Moroccan-Dutch writer, and his clear refusal to the labels attached to his writing. He argues explicitly that his work has nothing to do with his personal background and since he writes in Dutch, he is a Dutch writer. This is regarded as his 'performance' or strategic self-positioning in the Dutch society. His work also demonstrates his liminal positioning between the two cultures - Hafid Bouazza is an exemplary figure of cultural fluidity. The heterogeneous and hybrid characters of his work reflect the writer's continuous negotiations with and positioning of his identity in the context of the multi-cultural Dutch Society.

Key Words : Migrant literature, Dutch literature, identity, liminality, Hafid Bouazza, Paravion, Migrant author

참고문헌

- Bouazza, Hafid. *De Voeten van Abdullah*. Arena, Amsterdam, 1996.
- _____. *Momo*. Prometheus, Amsterdam, 1998.
- _____. *Abdullah's Feet*. Review, London, 2000.
- _____. *Een beer in bontjas*. Prometheus, Amsterdam, 2001.
- _____. 'Nederland is blind voor moslim-extremisme' in *NRC Handelsblad*, 20 February 2002.
- Derrida, Jacques. *Monolingualism of the Other, or The prosthesis of Origin*, University Press, Stanford, 1998. 28면.
- Ergün, A. ed. *Het land in mij*. Arena, Amsterdam, 1996.
- Gunew, Sneja. *Haunted Nations: The Colonial Dimensions of Multiculturalism*. Routledge, London, 2004, 72-73면.
-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Columbia UP, New York. 392-403면.
- Hoving, Isabel. "Review: The postcolonial turn in Dutch literary criticism", *Journal of Dutch Literature*, Vol.1(1). 114-122면.
- Kieskamp, Wilma. 'Bekroonde Hafid Bouazza gebruikt archaisch Nederland in sproojesachtige verhalen', in *Trouw*, 21 January 1997.
- Louwerse, Henriette. *Homeless Entertainment*. Peter Lang, Bern, 2007.
- Louwerse, Henriette. *Hafid Bouazza: Kritisch lexicon van de moderne Nederlandstalige literatuur*. Samson Uitgeverij, Alphen aan den Rijn, 2008.
- Rapport, Nigel & Dawson, Andrew (eds.). *Migrants of Identity: Perceptions of Home in a World of Movement*. Berg, Oxford, 1998.
- Rushdie, Salman. *Imaginary Homelands: Essays and Criticism 1981-1991*. Granta books, London, 1991.
- Shakespeare, William, *Othello*. trans. by Hafid Bouazza, Prometheus, Amsterdam, 2003.
- Sommer, Roy. *Fictions of migration: ein Beitrag zur Theorie und Gattungstypologie des zeitgenössischen interkulturellen Romans in Grossbritannien*. WVT, Wiss. Verlag Trier, 2001.
- Young, Robert. 'Deconstruction and the Postcolonial', in *Deconstructions: A User's Guide*, Palgrave, Houndsmill. 187-210면.

이 논문은 2018년 4월 10일 접수되어 4월 22일까지 심사받아 4월 23일 게재 확정됨.